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산악철도 등 주요현안사업에 필요한 2017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총력전'

이환주 남원시장 18일 국회 방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등 건의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산악철도 등 주요현안사업에 필요한 2017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18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광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만남에 이어 이영호, 김태년, 김동철 의원실을 방문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건립 등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먼저, 이 시장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비 291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트래젝트, 부대시설설

치 등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조성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건립을 위하여 국비 30억원 지원을 요구하였다.

시는 올해 CGMP 공동생산시설을 준공하였으며 화장품 상품 및 원료개발, 유통지원 등을 위한 70억원(국비 40, 지방비 30)을 투자하여 컨버전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 컨버전스센터가 준공된다면 화장품관련 기업유치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16일에도 이용

호 의원을 만나 산악철도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현편, 국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부처별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19일부터 증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은 시의 관광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부와 충분히 소통하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반드시 국비를 증액시켜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가 지난 18일 순창군 회의실에서 진행돼 순창군민들의 고충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순창군민들 고충해결사 역할 '이동 신문고'

복합면민들 지방도 897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민원상담 진행 '눈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가 지난 18일 순창군 회의실에서 진행돼 순창군민들의 고충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각 분야 전문 조사관 16명이 참여해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에서 주민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복합면민들이

지방도 897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복합면민들은 "지방도 897호선이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권익위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총 50여건의 공충민원이 접수됐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가급적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사항 중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은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문 상담관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동신문고처럼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생태환경 리더교육 주민실천운동 결과 발표회

소작장 없애기 등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가 군민들의 생태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주민실천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박우정 군수와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환경 리더교육 주민실천운

동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발표회에 앞서 협의회원들은 고창문화의전당에서부터 고창전통시장까지 고창친 정화활동을 진행했으며 발표회를 통해 각 읍면별 주민실천운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읍면지회마다 대표자가 주민 스스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가꾸고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개 소작장을 없애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정기적인 정화활동과 같은 주민실천운동 등 그동안 마을에서 실시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날 '한국인의 분향 고창,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특강에 나섰다.

박 군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생물권보전지역 보전·발전·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에서 수능 응원 캠페인 실시

청소년 비행 탈선행위 예방·보호의식 높여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7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응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저녁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남원시를 비롯한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참여해 청소년 비행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였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해방감에 따른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화적 청소년 선도 분위기를 조성해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캠페인 이후에는 유해환경감시단원과 청소년관련기관 등이 롯데마트 일원 밀집지역과 노래방, PC방 등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하였다.

강일석 센터장은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남원이 되도록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

하자."라고 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일석)는 지난 9일 학교폭력대책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제로를 위한 캠페인 "존중과 배려, 친구야 사랑해"를 하늘중학교와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센터는 2학기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남원시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정서적 여가활동지원을 통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와 지역사회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관내 청소년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제로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강일석 센터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은 또래 친구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는 가족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사회가 다 함께 자라는 청소년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특린스

임실군,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2016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 행사에서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열린 감염병 관리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조기 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도, 재난 상황 시 방역 활동 기여도, 국가 감염병 관리 시책관련 협조 및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실시됐으며, 군은 병·의원, 약국, 학교, 산업시설 등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조기발견과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염원 사전 차단 및 지속적인 보건교육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민 군수는 "우수기관 표창에 머물지 않고 감염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와 누수 없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참사랑 유치원, 후원물품 전달

남원 참사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일동이 5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필요한 아동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18일에 드림스타트를 내방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7명에게 직접 전달했다.

참사랑 유치원에서는 거주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아이들이 직접 '아빠다 일들장터'를 열었고, 이날 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모였다. 또한, 후원한 물품은 각 가정의 필요유구에 맞게 라면, 아동 내의, 생필품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었다.

참사랑 유치원 조남녀 원장은 "참사랑 유치원 아동들이 좋은 뜻으로 아빠다 장터를 열어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각 가정에게는 작은 물품일 수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어서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이지현 팀장은 "정말 고사리 손으로 모은 후원금이 정말 소중한 아동에게 전달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남원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 더불어 사는 이웃의 정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청소년 특별 선도 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지난 17일 야간부터 청소년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능 후 청소년 특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 전개하였다.

야간 선도·보호활동은 수능시험 종료 후 심리적 해방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전개되었으며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흥가 주변, PC방 등을 순찰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귀가조치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였다.

순창경찰청은 이번 달 24일까지 유흥가 밀집지역, 볼터 등 청소년 선도 및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활동과 술·담배 판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규운 서장은 "해방감에 떠들 너무 해이해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시기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돌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충분한 가운데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은 최대한 보호하되, 각종 일탈과 관련 업소의 탈·불법 행위 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애로·건의사항 등 수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따르지 않고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개선하고 적법화하기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한우 등 축종별 협회장과 축협, 군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의 축종별 협회 추진상황,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군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은 보완·개선을

통해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축종별 협회 및 축협, 행정이 합심해 무허가 적법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AI, 구제역 등 해외약상전염병 발생 위험기간이 도래했으나 축사내·외 소독 등 차단방역에 주력해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군은 참석자들에게 동절기를 맞아 열풍기 등 전열제품사용으로 인한 전기누전, 또는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니 전기·전열제품은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환기조절장치 등에 붙어있는 분진, 먼지 등을 제거해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스마트 팜 농업경쟁력 모색

순창군이 스마트 팜(Smart Farm) 도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업관련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부(U-Farmers) 및 스마트팜(Smart Farm)에 대한 개념 및 추진상황 설명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등의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며, 스마트팜이란 농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 등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시설의 온도, 습도,광량, 이산화탄소, 토양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히 스마트팜은 최근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환경을 자동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어를 수행하고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대학교 공공안전정보기술센터 박성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스마트 농업의 개념에서부터 최근 트렌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순창군의 도입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수는 특히 교육생들이 농업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제 네덜란드와 일본 등의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현황 등을 집중설명하길 바라며 "농업은 도시와 연계방면 등을 집중 설명해 관심을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